

명예를 베풀어

교육부서 새우자 - 다음세대

⑤ 담임목사 - 교육부서와 어른들로 관련될

교회학교 Nick~우~스입니다. ③ 교사 - 헌신된 교사 자기애에서 자헌성으로
우리교회 교회학교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④ 교회와 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교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교회도서관에서 교회설립 25년사 등 몇 권의 책을 빌려서 지난
추석연휴기간 동안 읽어봤는데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김창인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
배님들이 기도하며 부흥시킨 교회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특히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노력이 이곳 저곳에 무수하게 많이 있었는데 교
회가 엄청 부흥한 이후에 우리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배님들의 노력을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왔다고 느꼈습니다. 시간 나시면 도서관에 가서 교회설립 25년사를
읽어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1953년부터 1970년까지의 초창기 및 부흥 초기, 1971년부터 1995년까지의 부흥기, 1995
년부터 현재까지 정체기로 나누어 시기별로 구분해보았습니다.

먼저 초창기와 부흥 초기입니다. 교회 설립직후인 1953년 11월에 유년주일학교가 개교되
었고 6명으로 시작하여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때에 중고등학생회, 즉
면려회가 구성되었고 1963년에 중고등부로 분리되었고, 1966년에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
부로 분리된 후 1968년에 유치부가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표어가 제가 태어난 해인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시편 18편 1절입
니다. 영아부장님, 시편 18편 1절이 무엇이죠?

그 전에도 여름성경학교는 있었는데 겨울 성경학교는 한국 최초로 1964년 겨울에 개최
하였습니다. 겨울방학이 길고 겨울에도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
을 가지고 시도하였고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1969년에 교사학교가 개교되었는데 현재의 계절학교 교사강습회입니다. 그럼 여 부감
제는 언제 실시되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박인정집사님이 드리겠습
니다.

다음은 부흥기입니다.

영아부가 1975년에 신설이 되었는데 영아부 주일예배를 2부, 3부, 4부, 5부로 나누어 드
릴 정도로 인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도 5부 예배까지 드린 경험
이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유년주일학교가 매우 커져서 1984년에는 2개 학년씩
인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분리되었고, 1990년에는 초등1,2,3,4,5,6부로 분리된 후 1996
년에 다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통합되었습니다. 탁아부는 1990년에, 유아부는 1995
년에 개설되었으며, 중등부는 1,2,3부로 1991년에 분리되었습니다.

중고등부 동기수양회, 현재의 겨울수련회가 1971년에 열렸고, 같은 해에 지도자 양성부
가, 현재의 교사양성부가 신설되었고, 교사 부흥회도 실시되었습니다. 이 곳에서의 첫 예
배가 1984년 4월에 드러졌고, 1988년에는 명칭이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로 변경되어 현
재에도 교회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흥기까지만 설명하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정체기 아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까지는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정체기입니
다.

2006년에 도서실이 개관되었고, 2009년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3개 부서가 초등1부와
초등2부로, 중등 1,2,3부 3개 부서가 중등부로 통합되었고, 2015년에는 고등부가 제1교육
위원회로 편입되었습니다. 고등부 선생님들, 그 이전에는 고등부가 어느 위원회였을까요?
이 시기에 특이할 점은 교회학교 교재를 위임목사님 주일예배 설교에 맞추어 교회 자체
적으로 공과를 제작하여 사용해왔는데 총회에서 발간 한 계단공과를 채택한 점입니다.
과거 약 15년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채 교회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을 생각하
면 가슴이 아픕니다. 몇 년 전에 대학생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들 학생에게

성경 지식이 너무나 없어서 한 숨을 쉰 적도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배우도록 설계된 계단공과를 도입하도록 해 주신 전임 제1교육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인 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회학교 예배도 2번 드리다가 1번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중등부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재적 추이를 보십시오. 2004년에 184명, 20016년 160명, 2008년 130명, 2010년 107명, 2018년 현재 49명으로 14년 사이에 1/4로 줄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대로 가만히 주저 앉아야만 할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뽀~나~스로 오래된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거 부흥기에는 꿈을 가지고 갔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사진을 스캔 받아 준비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요. *중개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좀 전에 말씀 드린 충현 25년사 책자입니다.

주일학교 운영안이고 그 안에 있는 영아부 사업계획서인데 한글 타자기가 나오기 전이라서 등사원지에 철필로 직접 쓰고 표도 만들어서 롤러로 잉크를 문질러 글씨나 표가 배어나오게 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지 못한 선생님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연식이 오래되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는데 등사기를 집에 가져와서 시험지를 인쇄하신 것을 본 적이 있고 어렸을 때 교회 주보를 등사기로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꼭 보시겠습니다.

초기의 주일학교 사진, 64년에 열린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 사진입니다.

김창인목사님 시무 10주년 기념식 때 화동들입니다. 성경암송대회 사진입니다.

하기 학교, 하기 수양회 사진입니다. 지금은 수련회라고 하는데 수양회라고 했죠? 청평한얼산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사진인데 연도가 불분명합니다.

겨울성경학교 포스터입니다.

졸업축하예배, 여름 지도자 강습회입니다.

무슨 사진 같습니까? 지금은 성극이라고 하는데 그 땐 촌극이라고 했네요.

성경퀴즈대회 사진인데 손에 부저를 들고 있습니다. 72년 사진인데 역시 앞서 나간 충현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교육과정 규약, 운영해설 책자입니다. 각 주일학교별 조직, 사업계획, 예산이 나와 있고 오른쪽 사진은 어린이 새신자부 부장 장로님과 지도 목사님입니다. 여기에 나온 부장 장로님이 누구이신 줄 아십니까? 고등부 김영환장로님의 부친 김한홍장로님입니다. 역시 부전자전, 왕대밭에 왕대 난다 입니다. 영어로는? Like father, like son

고등부 동기 수양회, 겨울수련회 사진입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강사였던 것 같고 난로 연통도 보이죠?

마지막 사진은 1974년 일영에서 있었던 교사 학생 야외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등부 선생님들께는 중등부 특강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유대인과 아랍인의 묘지의 차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묘지 위에는 작은 돌이 많이 놓여있는 반면에 아랍인의 묘지에는 아무 것도 없죠? 유대인 부모는 자식과 같이 선조의 묘에 왔다가 자식에게 선조의 숭고한 뜻을 가르쳐 주고, 왔다가 간 기념으로 그러한 숭고한 뜻을 잊지 않겠다는 표식으로 무덤 위에 돌을 올려놓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한 숭고한 뜻을 잊지 말고 다음세대에게 전해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열정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